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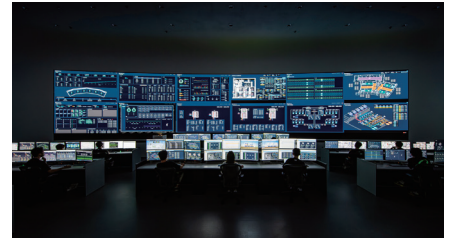


첨단기술 집약체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행복도시에서 본격 운영 시작

- 네이버, 4-2 세종테크밸리 내 29만3697㎡의 대지에 국내 최대규모 데이터센터 완공
- 첨단산업 기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적극행정 성과 실현



'각 세종' 전경



'각 세종' 내 통합관제센터

행복도시 4-2생활권에 들어선 국내 최대규모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 세종'이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6일, '각 세종'은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주요 외빈과 함께 개관 기념식을 진행하며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행복청은 지난 2019년 행복도시를 대한민국 지식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 LH 세종본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약 100:1의 경쟁률을 뚫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행복도시 입주를 결정한 이유로 네이버 측은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4차산업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행복도시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보통신 기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세종'이 위치한 4-2생 세종테크밸리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및 용수 공급 능력이 타 산업단지 대비 월등히 우수합니다. 이 점 또한 네이버가 행복도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행복청은 '각 세종' 유치 이후에도 차질없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돕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21년 2월 공사에 착수하여 23년 8월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세종'에는 다른 데이터센터에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각 세종'은 단일 기업 데이터센터로서는 대한민국 최대 60만유닛의 서버 수용량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도입 기술 또한 남다른입니다.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제어, 공기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율주행차량, 로봇(물품운송, 보안순찰 등)의 도입은 업무효율과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각 세종'은 친환경성과 효율성, 안전성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각 세종' 개관은 행복도시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도시 내 공동캠퍼스 및 세종테크밸리와 연계를 통해 4-2생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완성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행복도시 내 직접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기업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 '각 세종' :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팔만대장경을 지켜온 장경각에서 유래. 장경각의 정신을 이어 인류의 소중한 지식을 후대에 전한다는 의미

즐거운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생활을 소개합니다

- 시민들과 청사 공무원이 함께 누리는 복합체육문화공간
-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 꿈나무 자라나는 토양 역할까지



2023년 10월 현재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월 회원 수는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작년 8월 정식 개관 후 약 1년 만에 행복도시 세종의 체육문화와 생활스포츠 거점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체육관에는 축구 송종국, 농구 김병철 등 유명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직접 지도하는 '세종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서울 잠실에서 열린 '제6회 위너스 코리아챌린지컵 리듬체조대회'에서 이수현(도담초 6학년) 선수가 맨손규정 입문 레벨1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국가대표선수 천송이 코치에게 본격적으로 사사한지 2~3개월 만에 전국대회 1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청사체육관은 운영연혁은 짧지만 지역 주민과 청사 공무원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에너지 넘치는 도시명소가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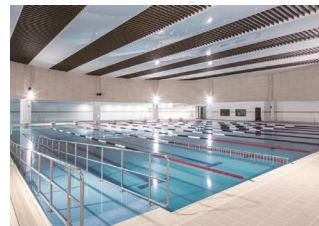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조감도

**행복 뜻하는 '세 앞 클로버' 형상, 사람·최첨단·친환경
도시의 '행복가치' 상징**

"2012년 말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초기 개발여건상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아 이전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여러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과 휴게시설 부족문제를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 담당자가 설명하는 체육관 건립 경위입니다. 실제 행복청은 2021년 시설 준공 직후부터 총 444대 규모의 주차장 일부를 개방 운영하는 등 청사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 건물은 행복을 의미하는 세 앞 클로버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를 표방하는 행복도시의 핵심가치를 아름다운 곡선과 독창적 디자인으로 구현했다는 평입니다. 외관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17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풋살장 지붕에 약 250톤의 철골 구조물(링 트러스)을 지상 조립 후 공중에서 인양해 설치한 고난이도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수영장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클럽

설계에 있어서는 방문객의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상공원, 휴게 공간, 녹지 등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동선계획도 반영했습니다. 또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기술 건축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고효율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것도 특징적입니다. 외벽과 지붕, 바닥 등 건물 전체 단열 성능을 기존 대비 24% 향상시켰고, 태양열 취득률이 높은 창호를 사용하여 차폐성능은 무려 1.5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무선센서를 활용해 냉난방·조명·급탕 등 에너지사용을 자동으로 통제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연면적 3만6천여㎡, 건축면적은 약 1만 5백㎡로 지하 2층과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의 수영장, 필라테스장, 헬스장, 지상 1층의 다목적홀, 풋살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5월 공모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주)이 현재 위탁을 맡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만드는 '건강한 행복'

2022년 8월 개관과 동시에 청사 공무원을 비롯한 행복도시민의 생활체육과 레저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은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이곳에는 수영, 아쿠아로빅, 풋살, 배드민턴, 탁구, 농구, 필라테스, 요가, 스피닝, 헬스, 어린이골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관리주체인 행복청은 학교현장에서 배우기 어려운 체육교육 지원에도 이곳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직접 지도하는 유소년 스포츠클럽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 사이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행복도시에 아직 전문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만큼, 체육관은 앞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펜싱,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을 신설해 부족한 체육교육의 양과 질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곳은 때로 행복도시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마당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인접한 푸른돌 근린공원과 개방감 있게 이어진 풀잎정원(선큰가든)이나 체육관 옥상의 특설무대는 각종 공연, 바자회, 야외전시 등 이벤트행사에 안성맞춤입니다. 실내에는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관도 마련되어 최근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역 신인작가 미술작품 초대전을 갖기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홈페이지(www.sjcs-sporex.co.kr)에 온라인 미술관도 개관하여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ESS(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자동 과열방지와 화재탐지 등 이중예방장치를 마련했고, 안전하고

편안한 체육관 이용을 위해 무선망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시스템도 빈틈없이 구축했습니다. 특히 체육관을 이용 중인 어린이의 무단이탈이나 수영장 이용 이상 징후(지정시간 이상 무동작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지킴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발생 시에는 체육관 관계자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알림으로써 발 빠른 초동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합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순찰하며 '일일안전지킴이' 역할을 맡아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수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공동체문화 확산하며 사회공헌에도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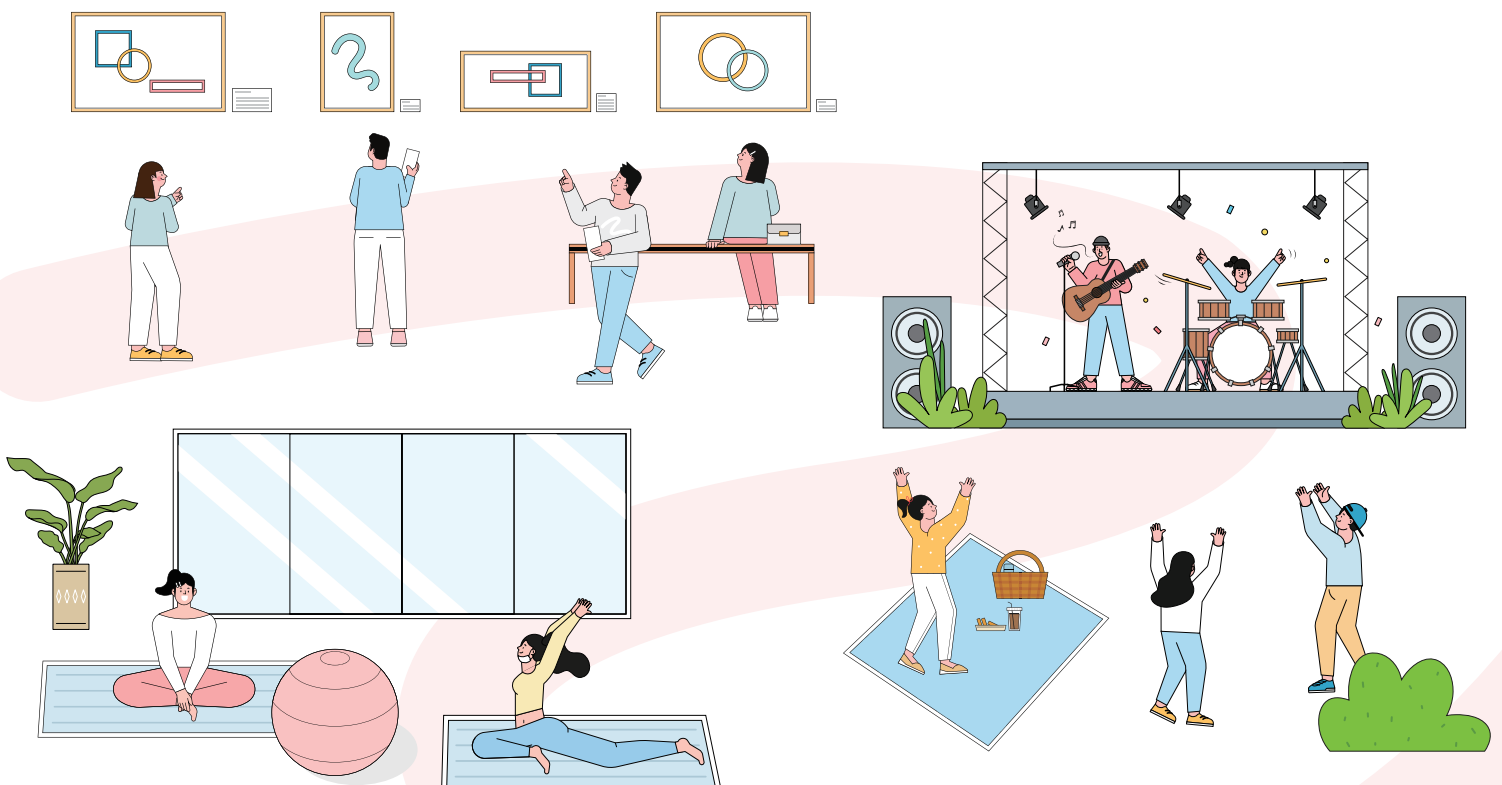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지역 주민 간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스포츠교실뿐만 아니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여름방학 체육수업 지원, 임산부 체조교실이나 실버세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활동분야를 넓혀가며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또 취미문화교실과 자녀 동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가족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도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풀잎정원(선큰가든)



미술작품전시관



“내 나이가 어때서?”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원에서 은퇴자 위한 평생교육원까지…

배움엔 나이도, 한계도 없다

- 청소년 진로상담 및 체험·탐색 등 위한 ‘진로교육원’ 금년 말 개원
- 학생부터 은퇴자·경력단절자 등 평생학습 위한 ‘평생교육원’ 건립 중

흔히 “배움에 나이란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 개개인의 의지에 따른 말로만 해석되고는 하지만, 이 개념을 확장하여 도시 차원에서 평생에 걸친 배움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전국 평균연령은 44.6세. 이에 반해 행복도시는 35.5세로 훨씬 젊습니다. 출산율이나 다자녀 비율도 국내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로 아이들 교육은 물론,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학습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은 진로교육원과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가칭) 등 다채로운 교육 자원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직업 시뮬레이션과 전문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돕는 ‘진로교육원’은 지난 3월 준공하여 연내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은퇴자나 경력단절자 등에게 인문·예술교육과 제2의 직업탐색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나 학부모, 교원 등 각계각층이 풍성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센터(가칭)도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진로선택은 진로교육원에”

행복도시 3-2생활권(보람동)에 들어선 진로교육원은 전문가와의 진로상담을 위한 상담실, 직업 관련 자료가 모인 도서관, 갖가지 주제의 강의실과 전시실, 동아리실과 같은 기초시설은 물론, 미리 여러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영상스튜디오·드론실습실·메카트로닉스제작실·크리에이터실·아트실습실·의료체험실·애니메이션제작실·창의미래실 등 특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의 진로교육원은 행복청이 건립을,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과 관리를 맡았습니다. 층별로 살펴보면, 지상 1층은 진입 마당에서 중정과 전시홀, 소강당 등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2층에는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진로상담실과 진로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특히, 디자인·코딩 등 디지털을 매개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공간인 3층의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와, 문화예술 직업군 체험을 위한 4층의 드라마세트장, 의상제작과 메이크업실, 녹음·편집실 등이 돋보입니다.

진로교육원은 금년 중 개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 체험, 탐색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연령과 세대 뛰어넘는 배움의 터 ‘평생교육원’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노년은 청춘에 못지않은 좋은 기회다”라며 생애 모든 주기에 걸친 꾸준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0세까지 기대수명이 늘어난 최근에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두터운 행복 도시의 경우, 초중고 학교교육은 물론 창업이나 경력개발, 은퇴 전 재교육과 재테크 등 전체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평생학습’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행복청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전문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여건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6-3생활권(해밀동) ‘캠퍼스형 고등학교’ 인접부지에 건립 중인 ‘평생교육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인구유입이 높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근 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체험, 취업 교육 등 학생부터 은퇴자까지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지적 호기심과 학습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은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1층은 평생교육 정보탐색과 소통, 2층은 강의와 학습, 3층은 교육체험과 창조를 콘셉트로 공간 간 연계성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평생교육원은 꾸준한 인적 역량강화와 직업교육, 시민 참여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가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 나” 과학 인재양성 위한 ‘과학문화센터’ 설립도 준비 중

행복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생 도시인만큼 그동안 과학관과 과학교육원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로부터 과학 관련 진로탐색과 체험활동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밖 과학교육 지원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가칭)’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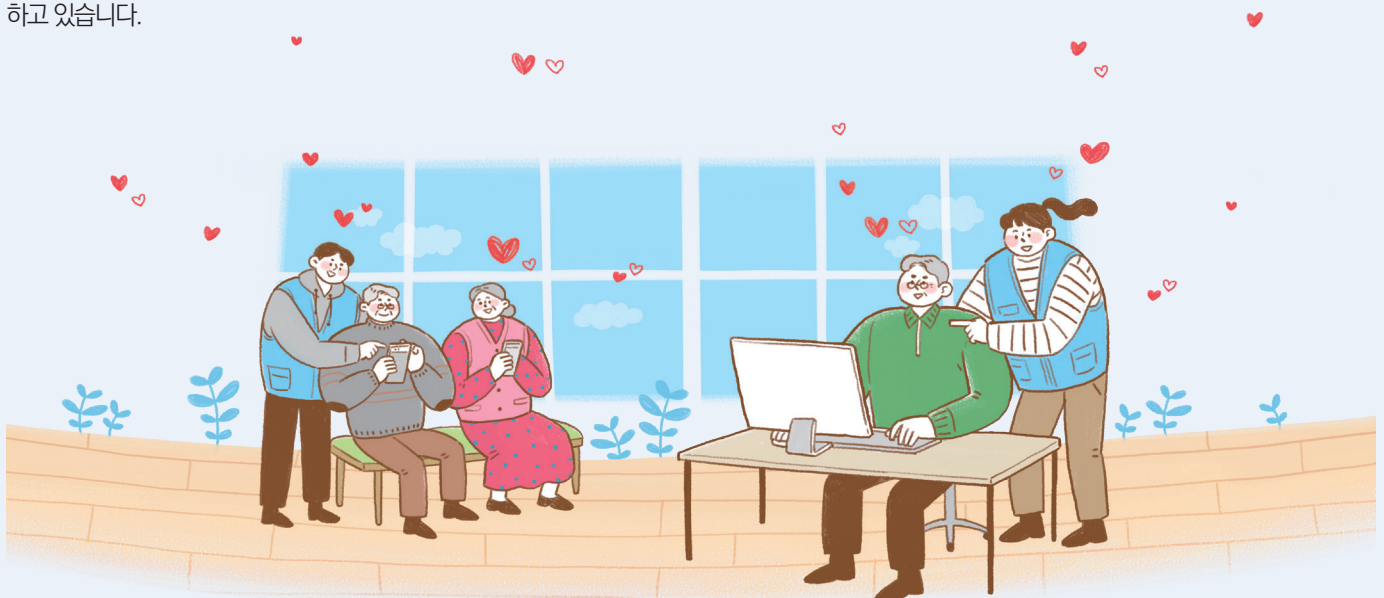
2027년 개관 무렵 행복도시 학생 수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행복청 등 관계기관은 학부모와 교원 등을 포함한 연간 15만 명 이상이 이곳 센터를 관람·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건립되는 동 센터는, 수학과 과학, 정보와 관련한 각종 대회 및 행사운영, 학생들의 창의적 발명 및 진로체험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교사연수, 과학실 등 학교 과학 인프라 개선, 시민 대상 천체관측체험과 과학 관련 메이커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청, 시민·도시·국가의 미래 디자인하는 신개념 평생교육 환경 구축 ‘박차’

세계는 바야흐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한가운데 있습니다. 학교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고, 각기 다른 개성과 학습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직장’이란 말도 이제는 ‘평생능력’이란 개념으로 대체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책임은 비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불명확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평생 교육은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평생학습시설들은 시민과 도시,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들 시설 건립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은 “학생은 물론 시민 전체가 창의적인 학습과 지적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평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세종시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교육시설이 추구하는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펄펄 끓는 지구, 도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탄소중립으로 완성하는 행복도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올여름 전 세계는 기록적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에 가까운 기상이변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6~8월 여름철 대한민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도 상승했고, 비는 291mm나 더 쏟아졌습니다. 지구촌은 그야말로 기후재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탄소배출입니다. 2016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탄소제로’의 실현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해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적 목표로 정하였고, 서울 등 주요 도시마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결정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행복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기반의 ‘친환경 생태도시’로도 건설됩니다. 행복청은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도입,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급시설을 확충해왔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수질복원센터, 폐기물매립장 등 공공 유휴부지에 약 17MW 규모의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해 연간 1만여 톤의 CO₂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빗물의 선순환을 중심으로 한 ‘저영향개발(LID)’ 기법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빗물의 지하침투와 저류능력을 향상시켜 도시 열섬과 수질악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친환경 도시개발 기법입니다. 행복청은 1천㎡ 이상 개발 시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을 수립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도심지에서 탄소중립 실현하는 데 있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달성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고성능 단열재나 창호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는 줄이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소요를 충당하는, 이른바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짓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ZEB인증제를 마련하고 건물유형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2030년 3등급 이상을, 민간건축물 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5등급 이상을 인증받도록 했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행복도시의 발걸음은 이러한 국가목표보다 훨씬 빠르고 바깥입니다. 2019년에는 고기능성 단열, 고효율 창호와 유리, 고기밀 시공 등 패시브 기술과 태양광발전 등 액티브 기술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60여 세대로 이루어진 이 단지의 세대 당 에너지 비용은 월 7천원 수준. 이 같은 성공을 기반으로 작년에는 78세대 규모의 2차 분양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자립률 66.9%에 달하는 제로에너지 3등급 공동주택이 금년 3월 행복도시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최신 녹색건축 기술이 총동원된 이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은 법적 기준의 42%, 온실가스배출량도 신축주택 평균대비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대 당 연간 690kg의 CO₂를 줄일 수 있는 수치로 연간 30년생 소나무 105그루의 식재효과에 필적합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행복도시는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초의 탄소중립 복합개발을 기치로 한 영국 런던의 ‘베드체드’나 모든 동력을 태양력,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처럼 국가의 친환경정책을 상징하고 온 나라에서 배우고자 찾아오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이끌었던 파비우스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기후변화에는 백신이 없다”라며 코로나19보다 이상기후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행복도시가 선보이는 탄소중립도시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서 세계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준공...개통 임박

-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가 마무리되면 연내 개통될 전망
- 청주 방향 교통량 분산으로 연청로, 한누리대로 등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완화

김형렬 행복청장은 11월 21일(화) 개통이 임박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현장을 찾아 현황 및 이용자 편의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외곽순환도로는 행복도시 내 두 개의 고리 모양 도로체계 중 바깥에 있는 고리로, 왕복 6차로 규모의 자동차도로입니다. 현재 전체 약 31km 중 1,2,3,4생활권 구간(22km)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어 이용 중입니다.

5생활권 구간은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km 중 3.6km)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과 시야 확보를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최초로 곡면 벽체를 설치하였습니다.

함께 개통 예정인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m의 교량입니다. 인근의 생태공원지구 및 하부 오토캠핑장, 교량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상부 구조 높이를 제한하고 하부를 특화한 여아치 형태로 건설하였습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청주·오송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연청로, 한누리대로, 햇무리교 등의 출·퇴근시간 정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렬 행복청장, 2023년 수출 중소·중견기업 전시·상담회 참석

김형렬 행복청장은 11월 2일(목)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3년 수출 중소·중견기업 전시·상담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참여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행복도시 기업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상담회는 국내 1,000여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모임체인 「글로벌 최고 경영자 클럽」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시 뿐만 아니라 기업간 교류확대, 상호 투자협력방안 협의 등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이인제 前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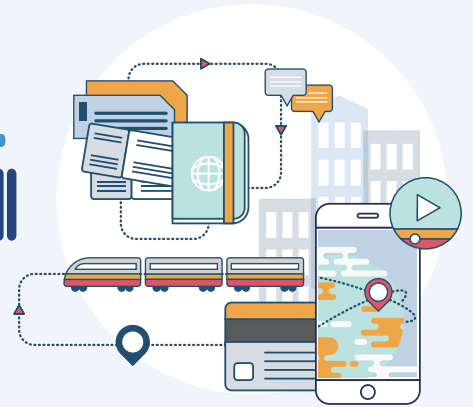
김형렬 행복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상담회가 민간과 공공이 협조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투자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복청

에서는 그간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달라진 도시위상... 새 틀 짜는 세종 도시 중심부 교통체계

-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입지하는 세종동(S-1생) 교통체계 개선
- 대중교통과 도로 함께 확충, 실질적 행정수도 미래 엿보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로마를 통하면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다는 ‘사통팔달’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나 인물, 상황 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로마를 꿈꾸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은 최근 국가주요시설 입지에 따라 세종동을 중심으로 한 교통 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중앙부에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은 물론 인근의 국립박물관 단지 등 문화·여가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의 교통정체를 줄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행복도시 교통의 근간 이루는 두 개의 고리, 한누리대로와 행복대로

행복도시의 도시구조와 교통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고리를 알아야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중앙녹지공간(S-1생활권, 세종동)을 중심으로 1생활권부터 6생활권이 배치되고, 이들 사이를 대중교통중심의 한누리대로와 외곽순환도로인 행복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도넛 모양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누리대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어 2015년 모든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중앙의 BRT차로 양 옆으로 널찍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대중교통분담률 70% 달성을 목표로 건설되는 도시인만큼, 최대한 자동차 수요를 분산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행복대로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는 순환도로입니다. 시외 혹은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이 도심에 진입하지 않고도 우회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동쪽 5·6생활권 부분은 아직 개통되지 않아 현재 ‘한 입 베어 문 도넛’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청주 방향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부터 개통될 예정입니다.

당초 도시를 구상할 때 도시중앙부는 녹지공간으로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도로 또한 인구와 교통유발시설 대부분이 순환형 교통축을 따라 1~6생활권에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순환형 교통축에서 벗어난 세종동에 새로운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동 중심 교통체계 개선 “늦었다 생각할 때는 이미 늦어... 당장 시작할 때”

세종동은 현재 중앙녹지와 원수산, 전월산, 금강과 미호천 일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면적만 24.1km²에 달합니다.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자리해 있고, 국내 최초로 5개 박물관과 통합시설이 들어서는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 중인 곳입니다.

2021년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대상 부지로 세종동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청은 곧 세종동과 인근 지역의 도로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교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세종동(S-1생활권)에 국가중추시설이 들어



서면 2030년 이 지역 하루 추가 발생교통량은 2만 25백여 대로 추산됩니다.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금남교 등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체계를 재검토하여 국가중추시설은 물론 문화·여가시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96호선 존치나 철폐나 기로에서 '존치' 가닥, 남·북단 도로와 횡단교량도 확충

중앙공원 내 임시도로인 국지도 96호선 도로의 경우, 행복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이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로 기능은 유지하되, 공원 접근성은 끌어올리고 적정수준의 통과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로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지도 96호선은 고속의 통과교통이나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중앙공원 2단계가 완료되면 이전 같은 이용은 어려울 것이 분명한 상황. 따라서 이번에 정비되는 노선은 생태보전과 통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금강수변을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형을 활용한 적정한 선형을 마련하고, 생태통로 등을 입체적으로 설치하여 지점별로 공원과 금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과 조화로운 도로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중앙녹지공간의 남·북단 도로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북쪽의 절재로와 임난수로는 S-1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남쪽의 갈매로와 금남교는 올해 이전이 결정된 국립민속박물관 및 96호선 계획과 연계하여 2차로가 확장됩니다. 또 출퇴근 정체와 직결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금강횡단교량 신설 사업의 경우 내년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 최적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 위한 교통개선 마지막 퍼즐, '광역철도와 교통수요관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총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중교통분담률을 늘리고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의 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도시는 이미 60% 이상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물리적인 도로 확장만으로는 개선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대중교통과 수요관리 측면에서 행복청 외에 세종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됩니다. 행복청은 광역철도와 연계한 국회세종역사당BRT·버스 등 신규 노선을 도입하고, 버스전용차로 및 철도역 환승센터, 자전거도로와 같은 대중교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세종시에서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2배 정액권 '이음패스' 등 정책에 발맞추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승용차 부제 운행 강화, 유연 및 재택근무 확대 등 출퇴근 피크시간대 교통수요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개통도 중요합니다. 행복도시 전체 통행량 중 승용차 비율은 46%로, 이 가운데 내부 이동량은 20%, 광역이동량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광역이동수요가 광역철도를 통해 흡수되면 향후 대전과 청주 방향 교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복도시는 아직 건설이 끝나지 않은, 성장기의 청소년에 해당 하는 도시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등 전체 골격이 형성되고, 도시중심부의 교통체계가 확충되는 2030년 즈음에는 완성된 버전의 행복도시 교통체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 절약은, 여기서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http://www.k-ap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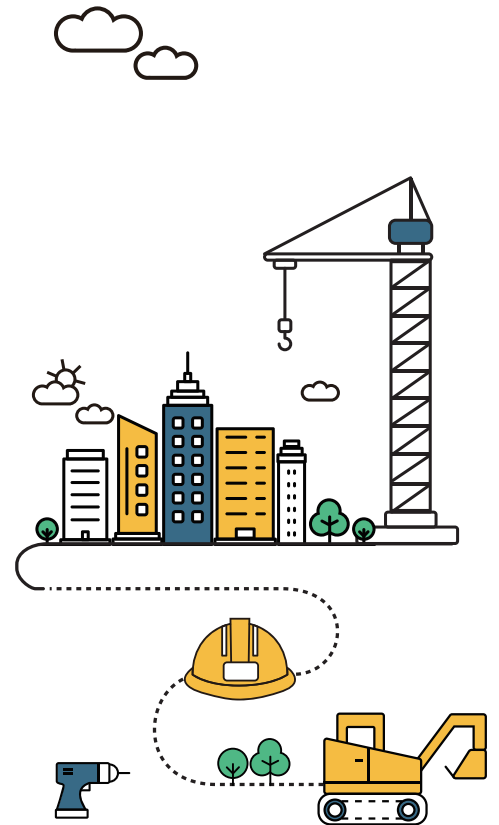


11월은 #안전을 지킴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집중 점검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도시의 스마트한 안전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한 건설, 미래를 건설하는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대규모 건설 작업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지 **행복도시의 건설현장 안전 비밀 병기를 공개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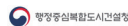
건설현장 사전 집중점검

매년 주요 공공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도로와 교량, 공공주택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기간 중 건설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행복도시 전 건설현장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서 현장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동절기 안전점검과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현장CCTV)

현장에 설치된 CCTV와 재해종합상황실을 연계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서 차단하는 거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강동점검체계)

실시간 재난 위험 상황을 대응하는 강동점검체계가 있어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감지기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강한 바람을 감지하면 즉시 다른 현장에 정보를 공유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한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비상대응체계 모의훈련)



비상 대응체계 모의훈련과 현장별 비상체계에 점검도 한답니다!

그리고 현장규모, 수요 등에 대응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복도시의 건설현장 안전 비밀 병기를! 어떠셨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스마트 안전관리를 활용한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앞으로도 집중, 밀착관리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애독자 코너

행복이와 한글교시(11교시)



사자성어 배워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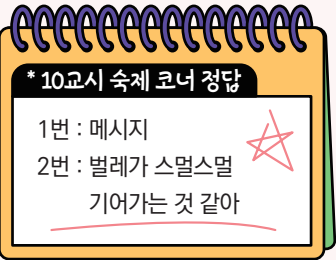
태	산	북	두
(泰)	(山)	(北)	(斗)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 '보통내기'와 '행균'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그런 행동을 보니 행균이 아니다. (X) - 그런 행동을 보니 보통내기가 아니다. (O)
- '셈하다'와 '셈놓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오늘은 얼마나 팔았나 셈놓았다. (X) - 오늘은 얼마나 팔았나 셈했다. (O)

숙제코너

- ①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1. 파이팅 2. 화이팅
- ② '경계선을 따라 좁고 길게 만든 꽃밭'의 뜻으로 알맞는 것은?
- 올림꽃밭 - 살피꽃밭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어느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세종세무서 건물은 'ㄴ ㄱ ㅇ ㅈ'이란 설계 개념을 적용해 한커의 외부공간과 세커의 납부서비스 동선으로 조성되고,
건물벽 주변에 붙은 경관 의자 등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집'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200호 기념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